

	보 도 자 료	
	작성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서연미 선임연구위원 (044-960-0215)
	배포	국토연구원 지식홍보팀(044-960-0582)
보도일시	■ 11.12.(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방송, 인터넷은 11. 11.(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

국토研, 국토정책Brief 제1037호 발간

-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서비스 소비자로서 지역 교육기관의 재정에 기여하고, 생활인구로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며, 잠재적 노동인력으로 역할 가능
 -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단계 이후 계속 체류를 지원하는 정책추진을 위한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잠재적 노동인력’ 으로서 외국인 유학생 역할이 점차 강조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서연미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37호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 을 발간하였다.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대학이 소재한 지역(광역) 내 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체류할 의사가 높으며(77.9%), 유학생 국내 취업지원을 위해 인턴십 기회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
- 서연미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외국인 유학생 유형화를 통한 졸업 후 체류 경로 다양화,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한 산학프로그램 확대, 외국인 유학생 창업 지원을 통해 졸업 후 취·창업 연결 사다리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지역이해도, 지역주민의 수용성 제고를 통해 유학생의 지역 내 정착 지원
 - 관련 통계연계 및 성과조사 시스템 구축, 지역일자리 수급계획 수립을 통한 취업 지원 정책 추진, 유학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정립을 통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 패키지화

첨부. 국토정책brief 1037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팀 담당자
(☎044-960-05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